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서울미술나눔

2022

SNU Scholarship Fundraising Exhibition



SNU 장학기금마련전

11. 9 - 21

오전 10시 - 오후 7시

SNU장학빌딩 2F 베리타스홀
서울 마포구 새창로 7

주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2022 SNU장학기금마련전 개최



수집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시기에 맞추어, 모교 출신 유명 작가 및

본회(회장 권영걸)는 오는 11월 9일 수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서울미술나눔 2022 SNU장학기금마련전'을 개최한다. 서울대 총동창회와 공동주최하고 본회 산하 공익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품

유망한 신진작가의 작품을 동문들에게 특별할인가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김인중(59회화), 한운성(65회화), 박항률(70회화), 김병중(74회화), 이혜민(74응미) 동문을 비롯하여 서울대총동창회 2023 캘린더 작품수록 동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특별 섹션으로 정채희(77회화), 변영혜(78회화), 선우항(91서양) 동문의 프레스코그라피 작품과 모교 10학번 이후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 전시회 수익금은 총동창회 장학금 및 본회 창작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매한 작품은 현장에서 바로 수령가능하며, 카드결제 및 영수증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장학기금마련전은 휴일 없이 관람가능하며, 개막일인 9일 오후 4시에 개막식이 준비되어있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다. 입장료 무료.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77년의 역사를 담는다!! '서울대미술인 2023'



본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77년의 역사를 담은 '서울대미술인 2023'(가칭)을 발간합니다. '서울대미술인 2023'은 미대 최초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 졸업 동문까지 전체 미대 동문의 작품과 실적을 총망라하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본회는 지난 2020년, '서울대미술인 2023'을 발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시각예술분야 약 800명의 동문을 수록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2'(사진)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서울대미술인 2023'은 회화/조각/공예/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디자인 등의 시각예술분야는 물론, 영화/공연/음악/저서/프로젝트/사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미대 동문들의 실적 이미지와 약력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작고동문과 해외거주 동문을 포함한 모교 및 동 대학원 동문, 모교 전임교원 등도 수록할 예정이기에 '서울대미술인 2023'은 2천명 이상의 동문들의 활동자료를 집대성하는 뜻 깊은 본회의 역점 사업입니다. 본회는 지난 3월부터 발간 준비 작업에 들어가 웹과 참고 문헌 등을 통해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1년간의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출판행사와 함께 도록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미술인 2023' 수록신청 요강은 11월 중 공지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동창회 사무국 (전화) 02-555-1946 (문자) 010-5235-1946

모교소식

진로특강 시리즈

모교(학장 김성희)는 서울대학교 진로특강 기간을 맞아 미술대학 진로특강 시리즈를 지난 10월 13일 오후 ZOOM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는 김아영 작가가 '무수히 갈라지는 길들'을 주제로, 김홍규 작가가 '현대예술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아영 작가는 현대미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지내는 현재와 사진작가이자 모션그래픽 디자이너였던 과거를 소개하며 정답이 없고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아티스트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다음으로 김홍규 작가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해외체류작가로서의 현실적인 삶과 한국전통예술이 현대 미술계에서 갖는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한편 모교는 2022년 2학기부터 진로특강 시리즈를 개최하여 창작활동 외에도 미술계 안팎에서 활약하는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예술과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생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디자인역사문화 연례보고전



디자인역사문화 전공 아홉 번째 연례보고전이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디자인연구동(49동) 1층 S&D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디자인역사문화 전공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이 수업을 통해 발표한 연구문과 비평문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자리였다.

전시 마지막날인 30일 저녁에는 전공생의 연구 및 비평 발표회와 디자인역사문화 전공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례보고전은 디자인역사문화 전공을 거쳐 간 졸업생들이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 남았다.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가을학술대회



조형연구소(소장 김성희)가 후원하는 202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가을학술대회 '중심과 주변의 미술사를 넘어서 : 지역미술의 역사, 쟁점, 현안'이 지난 10월 15일 모교 74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원, 대구, 광주, 제주 등 여러 지역미술의 역사와 쟁점, 현안을 심도있게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장이었다. 학술대회는 권행가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1부는 유혜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하에 김지영(영남대) · 임수영(독립기획 · 미술사학) · 박수홍(영남군립하정웅미술관) · 조수진(성신여대) 4인의 발표를, 2부는 오윤정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양은희(한국예술종합학교) · 김허경(전남대), 강선학(미술평론) 4인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3부 종합토론은 김현숙 미술사학자를 좌장으로 모교 서양화과(미술이론) 신정훈 교수와 권행가(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신수경(충남대) · 기혜경(부산시립미술관)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경선교수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디자인학부 김경선 교수가 '2022학년도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대는 중앙도서관 양두석홀에서 시상식을 갖고 창의적인 강의로 대학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 부문)' 수상자 김경선 교수 등 10명을 시상했다. 디자인학부 김경선 교수는 학문이 실천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기초조형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했고 강의내용과 교육연구과정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며 교육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대표 강의인 '디자인스튜디오'와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수업은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한 경험과 진정성 있는 피드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 역량 강화에도 공헌했다. 서울대는 대학 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해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하고 있다.

우석갤러리 초청큐레이터 기획전



우석갤러리(담당교수 신정훈)는 초청 큐레이터 기획전과 토크프로그램 'NUMBER THE SHADOWS'를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우석갤러리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모교 학생들과 전시를 여는 초청 큐레이터 기획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통의동 보안여관을 포함한 서울의 비영리 공간에서 전시를 만들고 2019년부터 WESS를 공동운영해 온 송고은 큐레이터를 초청하였다. 송고은 큐레이터는 공모를 통해 미술대학 작가 4명(강정현, 김유민, 이유진, 조재은)을 선발하여 '그림자 세기 NUMBER THE SHADOWS'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토크프로그램을 열어 두산아트센터의 장혜정 큐레이터와 기획자 송고은, 그리고 참여작가 4인이 관객과 만나 전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소소하지 않은 일상



서울대학교미술관과 평론가 프랑수아즈 독끼에르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프랑스 교류 단체인 '소소하지 않은 일상'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참여작가는 김참새 등 한국작가 9인, 로만 베르니니 등 프랑스작가 5인으로, 회화와 조각 150여점을 출품한다. 이번 전시는 여태껏 팝아트에서 다루었던 소비활동으로 위축되고 범주화된 일상 대신 꿈, 야생이 부르는 소리, 연약하고 관계적이고 불안정한 것들을 '일상'으로 보여주며 관람객이 지친 몸을 쉬어가는 오아시스를 표방한다.

회장동정

본회 권영걸 회장의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합니다(편집부)
출처 : www.sedaily.com/NewsView/26B9E1WJEX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용산공원, 센트럴파크 넘는 미래공간 될 것"



"용산국가공원은 국가의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필요한 모든 공간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빈관 건립 여부를 넘어 용산이라는 거대한 도심 공간을 대통령실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용산국가공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디자인재단의 권영걸(71·사진) 이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용산국가공원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권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공공 디자인 및 도시 디자인 권위자다. 오세훈 시장 1기인 2007년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부시장급)을 지냈고 2009년 초대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을 맡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스카이돔,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200여 가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제38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최근 용산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신축과 영빈관 설치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은 "용산 땅은 오랫동안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공간이었던 탓에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로 확보된 곳"이라며 "용산국가공원은 최대한의 비경제적 발상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은 시간의 예술"이라며 "당장에는 개발비가 들어가기에 논란이 일어나겠지만 조성 후 시간이 지나면 경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가 후속 세대에 약속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용산국가공원 개발과 관련, "생태공원과 역사문화공원의 개념이 융합된 공원을 상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160년 역사의 뉴욕 센트럴파크나 300년 역사의 런던 하이드파크를 뛰어넘는 미래지향형 신개념 공원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100만 평에 가까운 공원의 인구밀도를 조절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기술(IT) 등을 접목해 디지털 전환도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국가

공원에 대한 개발 논의가 이뤄진 지 10년이 넘는 만큼 용산국가공원 조성 계획과 기본설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 시대의 개막이라는 변수가 생겨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많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은 용산국가공원 개발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미 반환 받은 전체 부지의 31%를 먼저 공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잘게 쪼개져 각 정권마다 다른 지점을 추구하며 '난개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한편 최근 영빈관 논란과 관련해서 권 이사장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국가공원에는 국민이 향유하는 시설, 정부 기관 등 어떤 시설이든 필요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며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것으로만 보이며 시민사회의 분별력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인근 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용산정비창 개발은 시민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역사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21세기 도시 공간 미학의 르네상스를 계도하는 차원의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21/서울경제 권욱 기자)

충주경제포럼 강연

본회 권영걸 회장이 지난 10월 26일 충주상공회의소가 개최한 47차 충주경제포럼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폴리텍대학(충주캠퍼스)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강성덕 충주상의 회장과 홍석원 충주폴리텍대 학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 회장은 '문화강국의 길을 주제로 전문가에게 맡겨라, 비전문가를 끌어들여라, 정치의 문화적 전환,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신장, 문화공공부조 확대, 국민의 일반생활문화로 전환, 개방적 창조문화산업으로 전환하라, 지역문화 균형발전, 비교우위에 집중하라 등 문화강국 십계명을 강조했다.

서울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에서 강연 진행

본회 권영걸 회장은 지난 10월 13-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 11회 서울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미래를 여는 도시농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권회장은 한국형 텃밭디자인연구가 시급하며, 민관이 함께 연구하여 대학의 조경학과 원예학과 공간디자인 전공생들을 인턴쉽으로 참여하게 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시텃밭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2022서울도시농업국제컨퍼런스 : 전환시대의 도시농업과 먹거리' 검색

후원광고

프레스코 갤러리

FRESCO STUDIO

고급벽화제작

국내에선 유일하고 세계에서도 몇 없는, 프레스코기법으로 벽화를 제작하는 Fresco Studio **FRESCOREA**가 강원도 봉평의 허브나라농원으로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Frescorea 에서 하는일 : 르네상스시대의 프레스코벽화 제작
고구려 벽화 제작
현대벽화 제작과 프레스코 인테리어

프레스코 스튜디오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225
프레스코레아 대표전화 : 010 3940 9650

삼성동 파리지엔

Studio, 전경

서울대소식



동문창업네트워크 개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지난 10월 25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제2회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SAEN2)'를 개최했다. 2019년 첫 행사가 열린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동문 창업인들과 벤처캐피탈 대표들을 비롯해 교원과 학생 창업자까지, 그동안 다양한 창업성과를 이룩한 2백여명의 동문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였다. 오세정 총장은 "동문 창업인들의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가 선후배 창업인들 간의 좋은 전통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끄는 모범적인 창업지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문 창업인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교76주년 기념식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지난 10월 14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6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오세정 총장은 기념식에서 "추격의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고유의 학문을 세우고 우리 고유의 대학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며 변신과 혁신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기근속 교수, 직원,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총장최종후보에 유홍림교수



서울대 이사회가 10월 24일 제28대 총장 최종후보로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장후보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신임 총장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오세정 총장의 뒤를 이어 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간선제인 총장투표는 재적이사 15명 중 과반 8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방식이다. 유교수를 비롯해 남익현 경영대 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교수 등 3명이 맞붙어 최종적으로 유교수가 과반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교수의 공약은 △산관학 협력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SNU 연구펀드' 마련 △학부기초대학 설립 △교원 급여 연 6% 인상 △정부출연금 7200억원 증액 및 발전기금 8000억원 모금 등이다.

세계대학순위 국내1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뉴스)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2023세계대학순위에서 올해도 서울대가 국내1위를 차지했다. 세계순위는 129위로 첫 평가를 실시한 2015년 72위에서 2019년 129위로 하락세를 보인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순위는 서울대에 이어 2위 성균관대(세계 263위), 3위 KAIST(세계282위), 4위 고려대(세계290위), 5위 연세대(세계292위)이다. 세계1위는 순위 발표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올해도 하버드대가 차지했다. 이어 MIT,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옥스퍼드대 순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장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대는 지난 9월 26일 총장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비전과 교육연구, 학생지원, 국제화, 사회공헌, 재정확충 등 중장기발전계획 바탕으로 대학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 대학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대학 발전 및 개선방향 등의 자문과 개선안 도출을 위해, 2020년 국내외 석학 12명으로 총장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의 최종적 고객은 사회전체이어야 한다면, 과거 한국이 미네소타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서울대형 미네소타프로젝트'를 개도국 대학에 제공하는 글로벌 사회공헌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분야에서는 정부출연금에 아닌 기부금, 자체 재원확보 노력,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주간 개최



서울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서울대학교 건강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건강주간에는 체험행사 14개의 기관의 총 20개의 건강 관련 체험부스를 문화관 앞을 비롯한 관악 캠퍼스 일대에 운영했으며, 참여행사로 건강습관만들기, 정신건강 토크콘서트, 한마음걷기, '나는 건강 이렇게 유지한다' 영상상영, 건강축제에서 학생공연과 운동유튜버 핏블리 초청 운동강연이 진행됐다.

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뉴욕의 첼시마켓, 서울의 문래동 예술촌처럼 버려진 공장을 개조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 최근 서울대에 생겼다. 지난 40년간 관악캠퍼스 동쪽 건물에 난방을 공급해온 시설 제1파워플랜트(68동)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모했다. 서울대 문화예술원(원장 이종식)은 지난 9월 27일 이곳에서 '파워플랜트, 극장이 되다'라는 제목의 첫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AI,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구성됐다. 오래된 문화관은 900석의 콘서트홀, 300석의 블랙박스 공연장, 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한다. 파워플랜트는 리모델링을 거쳐 재학생 및 동문 창작가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년 10여팀을 선발해 창작공간을 내어주고, 하이브, 아트센터 나비, 디스트릭트, 민음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멘토링과 펀딩 등을 지원한다.

진로주간행사 개최



서울대 경력개발센터와 총학생회에서 사회 각계에 진출한 동문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목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진로주간행사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일대에서 진행했다. 연 2회씩 열리던 기존 채용박람회에 진로 멘토링과 토크콘서트를 새롭게 더한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3일간의 집중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고민의 깊이를 더하고 앞으로의 준비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경력개발센터는 "초(超)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직업세계의 변화를 감지하는 프로그램과 현장성 있는 진로교육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총학생회 또한 앞으로 고시생 대상 일대일 멘토링을 신설하고 창업 관련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미래를 위해 협업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동창회장·사무총(국)장 간담회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난 9월 2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 동창회장·사무총(국)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섭 회장을 비롯한 본회 권영걸 회장 등 3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회장은 '2022 서울대 홈커밍데이 동문나눔한마당' 일정을 설명하고, 2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가장 큰 행사인 만큼 많은 동문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 동창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간담회는 김회장이 단대나 특별과정의 특색을 살린 부대행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이런 자리가 마련해 각 동창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되었다.

3년만의 홈커밍데이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16일 버들골에서 '2022 서울대 홈커밍데이 동문나눔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홈커밍데이에는 동문 및 가족, 재학생까지 2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의 만남이라 더욱 감개무량하다"며 특히 멀리서 찾아준 미주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캠퍼스를 돌아보시면 모교의 발전상을 기분 좋게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일찍 모교를 찾은 동문들은 최근 광장으로 단장한 '샤'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휴일임에도 동문들을 위해 개방된 모교 홍보관 'SNU Hall', 박물관, 규장각을 방문했다. 부대 행사로 어린아이들에게는 페이스 페인팅, 어른들에게는 교수회관이 마련한 와인 시음행사가 인기를 끌었다. 한편 SM총괄 프로듀서 이수만 동문의 주관으로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개그맨 이용진, 미스트롯의 홍자,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웬디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탁상달력

총동창회는 본회가 추천한 미대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2023년 탁상달력을 제작했으며,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동문에게 11월말경 총동창신문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지난해까지 59세 이상 동문에게는 포켓수첩, 59세 미만 동문에게는 탁상달력을 발송해왔으나,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으로 수첩의 수요가 줄어들고 제작단가 인상으로 올해부터는 수첩은 제작하지 않고 탁상달력만 제작했다.

동창인명록 관련 전화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2011년, (주)한우리SJM과 5차례에 걸쳐 서울대동문인명록을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주)한우리 SJM을 통하여 3차례 인명록을 발간한 바 있다. 그 이후 계속 인명록을 발간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동문들이 많아 인명록 발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주)한 우리SJM에게 위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총동창회는 그간 (주)한우리SJM 측에서 구체적인 상의없이 4차 인명록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동문들에게 개인정보 확인 전화, 인명록 대금 선납 지로용지 발송, 광고요청 등의 행위를 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먼저 사과하고, 이제 총동창회가 (주)한우리SJM에게 인명록 발간을 의뢰한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위와 같은 인명록 발간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인명록 구매대금의 송금 또는 광고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동문들께서는 이에 일체 응하지 말기를 부탁했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주)한우리SJM과의 법적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문초청음악회

김종섭 회장이 홈커밍데이 등 동창회 행사에 기여한 동문을 초청해 지난 10월 17일 서울 논현동 삼익아트홀에서 '금난새의 클래식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노명호 회장 등 미주총동창회 동문 10여명을 비롯해 130여 동문 및 내빈들이 참석했다. 금난새(66작곡) 지휘자는 11인으로 구성된 뉴월드 챔버와 김진세 기타리스트, 이윤석(17작곡) 하모니시스트, 황동연(21기악) 색소포니스트 등과 비발디의 사계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었고, 관객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앙코르를 외치며 연주에 화답했다. 김회장은 "회장 취임후 여러 행사에 도움 주신 분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며 "총동창회가 앞으로도 즐거움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격려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국회의원 당선축하



총동창회가 지난 6월 열린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동문들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9월 15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조찬포럼에 앞서 진행되었다.

6월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당선 동문은 광역의원·기초의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5명, 광역단체장 7명, 교육감 5명, 기초단체장 34명 등 51명이다. 이날 안철수(80의학)·장동혁(88불어교육)·김한규(93정치) 등 국회의원 동문과 윤건영(81국민윤리교육) 충북교육감 등 당선자 15명이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당도해 동문들에게 인사하고 축하패를 전달받았다. 참석하지 못한 당선 동문에게는 총동창회에서 축하패를 우송할 예정이다.

11월 오찬포럼

- 일 시 : 11월 4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시청앞)
 - 강 연 자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 주 제 : 생활 문화 생태계와 퍼스트 무버
 - 참석인원 : 150명
 - 참 가 비 : 5만원(오찬 및 도서 제공)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함께 표기

서울미술나눔 2022 SNU장학기금마련전

- 기 간 : 11월 9일(수) - 11월 21일(월)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11월 수요특강

- 일 시 : 11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 주 제 : 쓰임: 21세기 미학 선언
- 참 가 비 :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신청기간 : 11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877-2039(전화불가), 팩스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후원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9.1-10.31)-가나다순

일반회비	강다현(17서양) 김재철(83산미) 오병욱(76회화) 유한이(92동양)
후원금	김성희(82회화) 15만원
광고후원금	한울회 30만원
	대림성모병원 20만원
	나성숙(71응미) 20만원
	선우향(92서양) 20만원
	이민주(76회화) 20만원

부고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옥란(62응미) 부군상, 2022년 10월 11일
김형주(66회화) 부군상, 2022년 10월 18일
안규철(73조소) 모친상, 2022년 10월 12일
윤동천(81회화) 모친상, 2022년 10월 7일
이웅배(81조소) 부친상, 2022년 9월 24일
김정락(84서양) 빙부상, 2022년 10월 19일
양진석(99서양) 빙부상, 2022년 10월 13일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찬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누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5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부직포주머니 가격표		
가로(cm)	세로(cm)	가격(원)
65	55	2500
85	70	3000
100	85	3500
110	90	4000
125	100	5000
150	120	7000
170	140	9000
195	150	10000

D-Pack에서 자체제작한 간편하고 튼튼한 부직포주머니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을 찾아서

바이블도자예술관 서동희(66응미)



서동희 동문이 운영하는 바이블도자예술관에서는 아담한 공간에 검은색 칸막이를 배경으로 서동문의 도자 작품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서동문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태도로 작품 하나하나의 의미와 제작기법 등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서동문은 지난 2012년 40년의 작품 활동을 담은 회고전을 인사아트센터에서 열었고, 전시를 마친 후 작품을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하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바이블도자예술관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 작은 공간인 관계로 전시작품은 1년에 한 번 교체된다. 그동안은 매년 전시를 해왔으나 코로나19 시국에는 부득이 전시를 하지 못하였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전시를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서동문은 이화여중·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경교육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작업을 해 왔다. 작년에는

도자로 빚어낸 '정결의 샘'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품으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주는 제 33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수상했다. 서동문은 '도예는 불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1000°C 이상의 가마 속에서 열기를 이겨내고 탄생하는 도자의 강인함 속에 그의 독특한 예술성을 담아왔다. 서동문은 도자기 작품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쓰여지길 바란다고 하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상설전시관을 만들어 누구나 편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작품마다 음성 도슨트를 설치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서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자공예를 전공하고 미국 캔사스대학교 대학원 도자공예 석사과정과 미주리대학교 대학원미술교육학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도자공예 명예교수이며, 36년 동안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도자공예 전공교수로 후학 양성과 도예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미국 에버슨 미술관, 미국 스펜서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바이블 도자예술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더샵스타시티 ■화-금, 11-5pm (예약방문)

서로재 옷칠 공방 나성숙(71응미)



서로재는 나성숙 동문이 한국 전통을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간으로 종로구 계동길에 위치한 한옥이다. 옷칠과 황칠을 작업하는 공방으로 옷칠 건조실과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옷칠학교와 각종 전통관련 이론 강의, 외국인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매장에서는 혼수함, 소반, 원주산 옷칠로 제작한 컵, 쟁반, 접시 등 옷칠제품을 진열 및 판매한다. 입구 카페는 문화인을 위한 쉼터로 여러 가지 모임과 담소의 장소로 활용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나동문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로재에서 나동문이 지도한 학생들과의 전시 '서로재이야기'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총 37명이 참가하였다. 나동문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 전통의 발전을 위해 옷칠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전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의 장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현대화시키고 세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나성숙옷칠학교에서는 방부, 방독작용을 하는 천연 옷칠을 사용하여 옷칠그림을 비롯하여 소반, 혼수함, 테이블 등 다양한 옷칠제품 제작법을 강의하고 있다. 나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 GSD에서 연수를 받았다. 서울과학기술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시절 일본과 중국 소주에서 옷칠을 공부하였다. 지금은 봉산재와 서로재에서 옷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최고위과정, 나무학교, 세종학교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나동문은 국립중앙박물관 CI, 올림픽로 상징조형물, 여수 엑스포 경관 등 주요 디자인 선발 및 지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았고,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사)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장, 한국여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북촌아트센터 이사장이자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나성숙 옷칠 학교
■서울 종로구 북촌로6길 32-1 북촌아트센터



나성숙 옷칠 학교

(www.bukchonart.com 배움터)

2008년부터 시작하여 23기를 배출한 옷칠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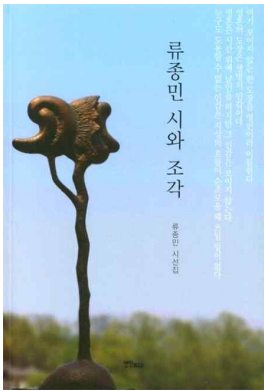
기초반	기초가 없는 일반인 대상
2차수업	나전, 할패기법, 골회바르기, 흑칠하기
3차수업	두부교칠, 색옷칠 마연기법, 금박기법
심화과정	옷칠공방 운영자, 칠 전공자 연구반

시 간 화,금 오전 10시 -오후 1시
장 소 서로재(종로구 북촌로 6길 32-1)
원 서 www.bukchonart.com 배움터
수강료 월 33만원 (부가세 포함) 신한은행
(주)봉산서로재 140-010-776743
연 락 02-766-6649 nass@seoultech.ac.kr



시집 ‘류종민 시와 조각’ 출간 류종민(60조소)

류종민 동문이 지난 7월 조각 작품과 시를 담은 시선집 ‘류종민 시와 조각’을 발간하였다. 류동문은 199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한국시인협회 회원이 되었으며 2002년 첫 시집 ‘천강의 달 그림자’를 발표하였다. 그 후 ‘달항아리’, ‘빛의 길’, ‘영혼의 도장’, ‘하늘과 땅의 그대’, ‘길이 열린다’, 등 6권의 시집을 펴냈다. 그밖의 저서로는 20여 년 동안 금강경을 보듬고 살아온 노교수의 현장감 넘치는 금강경 강의가 담긴 ‘오늘의 금강경’이 있다. ‘오늘의 금강경’은 총 3부로 구성하여, 평화와 자유·열반적정의 길부터 평등의 길, 밝음의 길을



주제로 류동문이 20년 동안 강의한 금강경의 내용을 글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그 외도 ‘보이지 않는 탑’ 등 다수의 불교 관련 서적과 논문을 출간했다. 한편 류동문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모교 조소과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국내외 여러 초대전 및 조각전에 출품하였고 13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7년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초대작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두손갤러리 재개관 김양수(69회화)



로 개관했다. 19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김동문은 뉴욕에서 ‘스페이스 언타이틀드’, ‘뉴욕미디어아트센터’라는 이름의 미디어아트전시장을 운영했다. 2000

김양수 동문이 한국 미술계의 유서 깊은 화랑 ‘두손갤러리’를 서울 덕수궁길의 옛 구세군회관 건물에서 재개관했다. 두손갤러리는 1969년 황학동과 충무로에서 고미술상으로 출발하여, 현대미술을 다루기 시작한 뒤 1984년 동숭동에서 ‘두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갤러리로 개관했다. 19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김동문은 뉴욕에서 ‘스페이스 언타이틀드’, ‘뉴욕미디어아트센터’라는 이름의 미디어아트전시장을 운영했다. 2000

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에서 ‘인터아트갤러리’ 등의 이름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문화예술에 눈을 뜬 갤러리스트이자 문화예술애호가인 삶을 살아왔다. 김동문의 화랑업은 고미술로부터 출발하여 김환기·이중섭·박수근과 같은 한국의 근현대미술의 대가로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 미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박서보·정창섭·곽인식·심문섭·최병훈 등의 작가들을 후원했으며,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과도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김동문은 “서양 미술계가 아시아 작가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 작가들이 그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작품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철학을 작품으로 잘 표현해내는 한국 작가가 곧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 시민의 장 ‘문화장’ 수상 김병중(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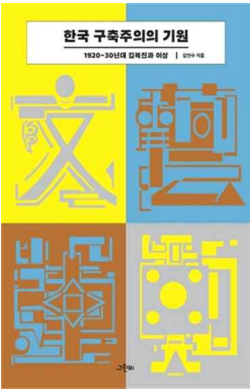
김병중 동문이 지난 9월 22일 남원시로부터 제28회 남원 시민의 장 ‘문화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김동문이 40여 년간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적인 화가로 이름을 날리고 작품 기증 활동도 활발히 해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동문은 남원시가 건립한 시립미술관에도 5천여점의 미술 작품과 자료를 기증한 바 있다. 한편 김동문은 11월 수필집 ‘거기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문필 향이 짙은



화가로 분류되는 김동문은 그동안 ‘화첩기행’ ‘시화기행’ 에세이 시리즈로 국내외 예술가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그들이 남긴 작품과 인생,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유에 대해 풀어냈다. 김동문은 모교학사·석사, 성균관대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미술평론과 희곡이 당선됐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는 ‘김병중 40년, 붓은 잠들지 않는다’ 특별전을 11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저서 ‘한국 구축주의의 기원’ 출간 김민수(79응미)

김민수 동문의 저서 ‘한국 구축주의의 기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100년전 일제강점기라는 상실의 시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김복진과 이상의 치열한 ‘삶의 예술’을 다루고 있다. 책의 표지에 활용된 김복진의 『문예운동』 표지 레터링은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의 모습으로, 현실을 변혁해 내려는 목적과 운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동문은 이처럼 현실 속에서 투쟁으로 해방의 길을 찾아낸 김복진과 우주적 가상세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창조



해 낸 이상의 구축주의를 통해, 개개인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말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사회와 예술이 지속 가능하며, 진정 삶을 위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모던디자인비평’ 등 8권의 저서를 출간한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미국 프랫인스티튜트 석사와 뉴욕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모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FRESCOREA 오픈 선우향(91서양)

선우향 동문이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에도 몇 없는 프레스코 벽화 작업실 겸 갤러리 FRESCOREA를 강원도 봉평 허브나라농원에 새롭게 이전 오픈했다. 선우동문은 모교 재학시절 프레스코를 배운 이후, 프레스코에 필수적인 재료인 생석회와 소석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단양과 부흥의 석회공장을 견학하며 습득했다. ‘프레스코의 현대적 응용에 대한 연구’로 석사과정을, ‘Intonaco의 재해석’을 통한 프레스코의 현대적 확장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현재 모교에서 프레스코벽화 강의를 하고 있다. 선우동문이 개발한 프레스코기법의 현대적 확장 방식 ‘프레스코 그라피(Frescoes graphy)’는 프레스코화를 고정된 천장과 벽면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11회의 개인전 등을 통해 석회벽 깊이 흡수되어 융화된 발색의 절제미와 맑음을 표현해온 선우동문은 명실상부한 프레스코화가로서 프레스코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밴드공연 ‘콜리플라워 특집’ 손효진(17서양)

손효진 동문이 보컬로 활동중인 밴드 ‘문없는집’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마포 Clup FF에서 열린 ‘콜리플라워 특집, 초록색을 입고 싶었지만 이미 주인이 있었네’ 공연에 참여했다. 손동문은 모교 재학 중이던 2018년 서울대 중앙작곡 동아리에서 만난 김민식·이힘·김소윤과 록밴드 ‘문없는집’을 결성했다. ‘문없는집’은 2018년 컴필레이션 앨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F’로 데뷔 후 2019년 ‘Happyhappyhappy’와 ‘문없는집’, 2020년 ‘밝은 미래’, 최근 ‘Colors Of



등 꾸준히 신곡을 발표해 왔다. ‘경계 없이 모두가 오갈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신스팝을 기반으로 장르간 경계가 없는 음악을 추구한다. 네이버 앨범발매 프로젝트시즌7 상위 6팀에 입상했으며 동심을 표현할 특색 있는 멜로디와 다양한 사운드의 음악을 만드는 팀이라 소개됐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손동문은 앨범 ‘Happyhappyhappy’의 표지를 직접 제작한 바 있다.

물(物)심(心) 정창섭(46회화, 1927-2011)

한국현대미술 1세대 거장이자 단색화 대표작가인 정창섭 동문의 작품전 '물(物)심(心)'이 서울 삼성동 PKM갤러리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렸다. 한국적 현대미술을 치열하게 모색했던 정동문의 예술세계와 미적 성취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의 '탁'(Tak) 연작에서부터 원숙함으로 독창적 화업의 정점을 이룬 2000년대 초의 '묵고'(Meditation) 연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후기 예술세계를 집약하는 작품들이 공개됐다. 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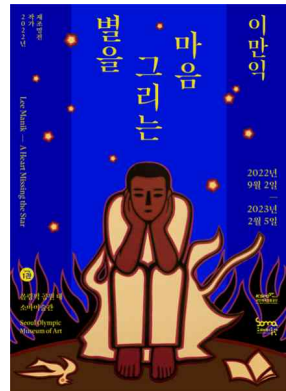


정동문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문의 작품은 평면성을 넘어서선 추상적인 오브제 회화로서 대상(物)과 자아(心)의 일체화를 이루었으며, 한국인의 미의식을 계승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별을 그리는 마음 이만익(57회화, 1938-2012)

이만익 동문의 회고전 '별을 그리는 마음'이 서울 송파구 소마미술관에서 지난 9월 2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열린다. 올해 서거 10주기를 맞이한 이 동문은 한국인의 이야기를 가장 한국적으로 그리는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그림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왠지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온다. 이 동문은 한국인의 근원과 원류를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화가였다. 전통적 가족애, 국가와 고향, 나아가 건국신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근원을 주된 소재로 삼아 왔다. 그 과정에서 "그림이 어렵고 모호해져서 공허한 논리로 옹호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설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방식



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시와 문학을 사랑했던 이동문은 시를 읊고 사유하듯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를 주제로 한 작품과 윤동주, 김소월, 박목월, 이중섭 등 문학과와 선배 화가를 오마주한 작품을 그려내었다. 이 외에도 1988년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역임하면서 대중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그려내었을 뿐만 아니라 뮤지컬 '명성황후'의 포스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그의 '유화자매도' 작품이 차용되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 이번 전시에는 이처럼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원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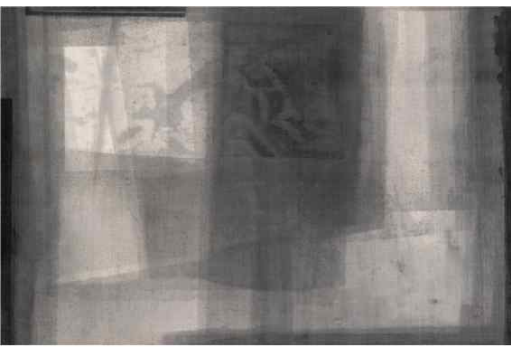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 엄태정(58조소)

엄태정 동문의 개인전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신작을 포함해 발표되지 않았던 1960년대 초기작 등 조각과 드로잉 19점을 선보인다. 한국 대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공간사옥 지하의 소극장에 자리한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알루미늄판 사이에 첼제 타원형 고리가 끼워진 작품을 마주한다. 올해 제작한 이 작품이 전시 제목이기도 한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으로, 수직과 수평, 면과 선, 은빛과 검정이 조화를 이루며 음과 양, 시간과 공간의 공존과 어울림을 보여준다. 엄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부터 철의 물질성에 매료되어 반세기가 넘도록 금속조각과 시공간의 조형성에 매진해오고 있다. 그는 "알루미늄은 차지도 따듯하지도 않으며,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금속재료"라며 "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조용한 물소리 같은 시가 들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빛과 닻: 장상의 60년 장상의(59회화)



장상의 동문의 회고전 '빛과 닻: 장상의 60년'이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시에 위치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를 대표하는 한국화가로 전통성과 현대성, 문인화와 추상미술의 미감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장동문의 작품세계 전반을 망라, 조명하는 전시다. 전시의 제목 '빛과 닻'은 60년에 걸친 장동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작가의 오랜 화력(畵歷) 동안 작품의 지향점이나 표현 방식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빛과 닻이라는 주제의식은 달라진 적이 없었다. 이번 전시는 먹과 채색, 종이와 비단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탁월한 조형의식으로 다루었던 장동문의 60여년에 이르는 작품세계를 시대별로 나누어 조명한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9회의 개인전과 300여회에 이르는 단체전을 여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오며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대구예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Connected 박윤희(63회화)



박윤희 동문의 개인전 'Connected'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비채아트뮤지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박동문은 추상기법의 작품 중에서도 '동과 서의 바람' '한국인의 심상', '드론의 시계' 등 작가가 겪은 현대사의 질곡을 표현한 회화 23점을 전시한다. 박동

문의 작품들은 짙은 색감으로 형상을 뒤섞어 혼돈과 질서를 상징하는 선이 굵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에 대해 박동문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화해하길 바라는 염원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08년 목인갤러리 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단체전, 개인전에 참가해온 중견작가다. 박동문은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두 달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진부령미술관에서 개인전을 동시에 열었다. 진부령미술관 전석진 관장은 박동문에 대해 "박화백은 고성군과도 인연이 있다. 제가 소유한 박윤희 회화작품 39점을 2020년 고성군에 기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유(思惟)하는 공예가 유리지 유리지(64응미, 194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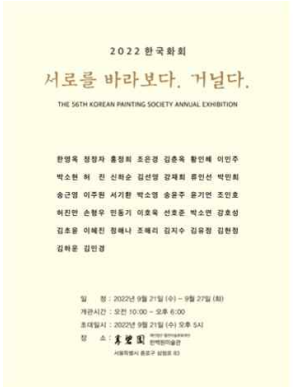


작고한 유리지 동문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전시 '사유하는 공예가 유리지'전이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생전의 작업실을 재현한 1부 공간에선 1960~70년대

작품과 가족의 이야기를, 2부 공간('바람에 기대어')에선 자연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유동문의 관심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골함(골호·骨壺)도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유동문이 작고한 뒤 작품과 자료를 관리해온 유족이 지난여름 총 126건 327점을 공예박물관에 기증하며 열린 특별전으로, 박물관은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격년으로 한국 공예작가를 선발하는 '서울시 공예상'을 신설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였으며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선진 금속공예 기법을 들여왔다. 1981~2010년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재직했고, 2004년 국내 첫 공예 전문 미술관인 치우금속공예관을 설립했다.

서로를 바라보다. 거닐다. 한국화회

제56회 한국화회전이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월전문화재단 한벽원미술관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거닐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전시 제목은 팬데믹이란 터널의 끝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이제는 하늘과 햇살, 바람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영옥·정정자·홍정희·조은경·김춘옥·황인혜 등 원로동문부터 신하순 등 중진 및 선호준·박소연·강호성·김초윤·이혜진·정해나·조해리·김지수·김유정·김현정·김하운·김민경 등 젊은 세대까지 어우러



진 37명의 동양화와 동문들이 미래 한국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전시였다. 한편 한국화회의 전신은 목림회로서 1960년 3월 6일 권영우·서세옥·박노수·안상철·민경갑·박세원·장운상 동문 등에 의해 창립되어 한국 미술의 뿌리와 정체성을 모색하고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한국화회는 1967년 송영방·신영상·이규선·임송희·장상의·정탁영 등 21명 동문들에 의해 해당 명칭으로 신문화관화랑에서 첫 전시를 연 후 현재까지 맥을 이어 오고 있다.

REFLECTION 이창분(75회화)



이창분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초이스아트컴퍼니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년 넘게 이어온 이동문의 다채로운 작품과 작품 세계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는 자리이다. 이동문은 자연에서 얻은 빛의 생명력을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와 간결한 붓질로

오롯이 화폭에 담아내며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풍경, 그리고 그 풍경 속의 꽃과 잎들 같은 자연의 조각을 캔버스에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이동문은 화폭에 담은 최초의 색채들을 빛으로 덮어 나가듯 화이트로 겹겹이 칠해 나가며, 남은 형상들로 작품을 마주하는 이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 파리, 도쿄 등에서 20회 이상의 개인전과 화랑미술제, 한국 국제 아트페어(KIAF) 싱가포르 아트페어, 아시아 현대 미술제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주 터키 한국 대사관,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에 소장되어있다.

다정한 자매들 이수경(78회화)

이수경 동문의 개인전 '다정한 자매들'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덕수궁길에 재개관한 두손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대표작인 '번역된 도자기' 중 이탈리아의 카포디몬테 박물관과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을 소개한다. 이동문은 도자기 파편을 엉겨붙이고 균열들을 순금으로 붙여서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는 버려지고 상처받은 것들을 모아 새로



운 존재로 되살아나게 한다는 점에서 상처와 치유라는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 형태를 해체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조형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라는 두 축이 만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도쿄, 뉴욕, 영국을 오가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원한 공명-母馬, 그리고 순간의 편린들 이민주(76회화)

이민주 동문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안상철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1991년 미술전문잡지 조형미술기사에 '화선지 위의 철학가'라는 제목이 붙여졌듯이 이동문은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상과 행위의 적절한 공명을 화면에 담아왔다. 이번 개인전은 이러한 순간의 편린을 다양한 기법으로 담아낸 4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국내외 비엔날레를 비롯한 미술관,박물관



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등에서 600여회의 단체전과 서울을 비롯해 워싱턴, 베를린, 마드리드 등에서 57회의 개인전, 20여회의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이동문은 한국예술발전상, 테일러미술상(프랑스)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과 모교·동국대·고려대·경희대 등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인도현대작가교류회 회장, 삼심아

The Eternal Resonance-Mother, Horse and Feats of Moments

영원한공명-母馬, 그리고 순간의 편린들

이민주(清若李珉柱)MinJooLee

The 58th Solo Exhibition

2022.10.26-11.18 안상철미술관

11am-5pm(일,월 휴관)

Ahnsangchul Museum,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905, Ahnsangchul.co.kr, Tel.031-874-0734

후원광고

뫼비우스적 노마드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의 초대전 '뫼비우스적 노마드 Mobius Nomad'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 삼청동 베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유목동물+인간_문명' 시리즈는 과학문명 숭배에서 비롯된 폐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환경 친화적 생태론을 기반으로 해 형상화한 연작들이다. 강렬한 색채 위에 부유하는 흑백의 군상은 현대 문명 속 인간의 피폐함을 강조하는 한편, 유목동물을 자유롭고 복잡하게 배치하는, 여러 이미지의 나열은 자연과의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는 작가의 소망과 열정을 보여준다. 허동문은 "이번 전시는 결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로 자연과의 상생과 조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며 "순환적 자연생태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졸업후, 서울, 뮌헨, 교토, 홍콩, 모스크바 등에서 30여차례의 개인전과 550여회의 그룹기획 전시에 참여했다. 한국일보청년작가초대전 우수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등을 다수 수상했으며, 현재

Void(빈터)_틈과 사이 이상은(86서양)



이상은 동문의 개인전 'Void(빈터)_틈과 사이'가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컬에서 열렸다. 이동문의 시간관련 작업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미세한 순간들, 사방에 흩어진 기억과 순간의 파편들을 화면 한

에 끌어 모아 시간의 집적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동문은 "수많은 시간들, 경험이 쌓여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지만 과거의 시간들은 뒤영키어 정확히 기억되지 않고 나를 이루는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두서없이 오가는 뒤영킨 시간들, 망각과 상실을 통해 지워져 가고 또 다시 생성되는 변화하는 시간의 집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또, "빈터 속에 존재하는 시간의 집적, 집적된 시간의 틈과 사이에 존재하는 흔적들은 시간 사이의 틈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간다."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미국 프랫인스티튜트, 연세대학원을 졸업, 국민대 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명대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100 홍광현(86산디)

홍광현 동문의 개인전 '100'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전시제목인 숫자 '100'은 작품 100점을 전시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100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전자라면 집요함과 완결의 의미가 강하고 후자라면 풍부함을 기대하게 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꼼꼼하게 100번을 칠하고 새겨내었을 뿐 아니라 그림, 글씨, 이미지가 서로 다른 색과 질감, 농도로 100 개의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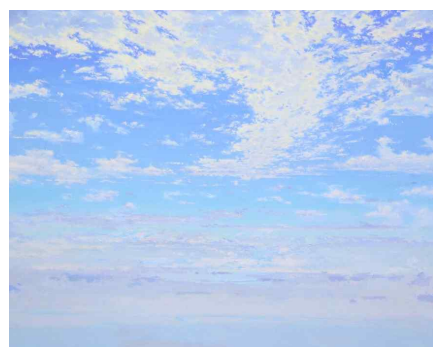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09 독일 하노버전 등 여러 그룹전에 참여했다.

적인 느낌을 전한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 졸업후 미국 ACCD에서 Transportation Design을 전공했으며, 현대자동차 등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현재는 하이엔드 수입가구업체 플랜리빙을 이끌고 있다. 또한 순수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큰 공간의 소리 우명하(89서양)

우명하 동문의 개인전 '큰 공간의 소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산지갤러리에서 지난 9월 30일까지 열렸다. 우동문은 하늘의 변화무쌍함과 생명력에 매료돼 15년 동안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조명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하늘과 구름, 석양을 소재로 한 작품 34점이 출품됐다. 우동문이 출품한 작품들의 제목은 모두 '큰 공간의 소리'이다. 이는 우동문이 작업 노트에 남긴 "하늘의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역동적인 깊은 움직임은 나에게 영혼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말처럼, 하늘이라는 공간을 거대한 세계가 운행되는 생명



력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다. 또한 우동문은 제목의 '소리'는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온 감각으로 관찰하고 그리며 소통하는 영적인 소리를 나타내며, '큰'이라는 말은 공간이 큰 것과 그 의미가 크고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이중적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우동문은 서울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진주교대 대학원과 선화예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Plug and play 김정아(90서양)

김정아 동문의 개인전이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예술 작품으로 잘 알려진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일상의 풍경과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미지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IT용어인 Plug and play는 컴퓨터에 새로운 장치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 장치를 그대로 인식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신기술 대신 김동문은 사각 캔버스와 원형 캔버스, 합판 위의 드로잉들을 조합하는 작업을 통해 풍경들의 '접속'을 실험하고 있다. '푸른



현재는 거제대학교에서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김동문은 개인전 및 바다쓰레기전을 비롯해 그룹전시전까지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골목의 안쪽은 나무 위에 걸린 달, 한쪽 벽면만 남은 건물과 회전 목마, 밤의 숲 이미지를 연결해 어디서 본 것 같지만 현실이 아닌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예술감독을 거쳤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채현교(90서양)

채현교 동문의 개인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 스페이스유원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이대목동병원 개원 29주년과 이대여성암병원 확장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 특별 전시회이다. 채동문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 바닷속 풍경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채동문은 26년째 '나는 어디로 가고있다'라는 동일한 주제로 개인전을 열어오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장벽을 스스로 깨부수고 성장하는 인간의 힘, 그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생명력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바닷속 풍경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관람객들이 저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 관훈갤러리를 시작으로 인터콘티넨탈호텔, 갤러리무이, 사이아트갤러리,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갤러리, 한국경제신문 한경갤러리 등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Sacred Breath 서길현(91조소)

서길현 동문의 초대전 'Sacred Breath'가 벨라한 갤러리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서동문의 작업은 평면 위에서 특정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변화되는 양상으로 펼쳐진다. 그림 그리기는 그에게 반석과 같은 세계의 단단한 지각을 뚫고 들어가 생의 본질을 향한 성찰의 시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펼쳐나감으로써 세계와 삶의 추상적 핵심에 다가가는 순수한 사색의 작업이다. 서동문은 작가노트에서 회화는 외부 세계의 기이한 걸모습을 넘어선 곳에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속살로부터 미지



의 이미지를 포착해내는 일이며, 대답 없는 삶에 대한 끝없는 메아리처럼 나선형의 이미지로 감기거나 풀려나가는 세계의 피륙을 짜는 일, 너그러운 신의 손이 마술의 실을 풀었다가 감았다하며 변화무쌍한 수정의 망토를 짜는 일과 같이 무심하고 경이로운 수정 망토의 매번 다른 펼쳐짐처럼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의 은유라고 설명했다. 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느 조형예술학박사를 수료했으며, 서울조각회 이사과 미술과 비평 평론위원을 맡고 있다.

경계, 흙으로부터 채성필(91동양)

채성필 동문의 개인전 '경계, 흙으로부터: Boundary, From the Earth'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전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익명의 땅', '물의 초상', '흙과 달' 등 주요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며 흙을 매개로 자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의 작업의 전개 흐름을 조망했다. 채동문은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담은 재료로써 흙을 다루기 시작해 만물의 근본 물질을 설명하는 서양의 '4원소설'과 동양의 '오행설'이 모두 흙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흙을 통해 본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발전시켰다. 원초적 자연의 힘을 담은 작품들은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본질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한편 채동문은 1998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프랑스로 건너가 렌스 2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채동문의 작업은 세르누치 박물관, 파리 시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소장 중이다.

블루스 Blue's 장진(92동양)

장진 동문의 개인전 '블루스'가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OCI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 자신의 육체로 쌓아 올린 '노동'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Blue'를 통해 'Blues'를 선택하고 적극 긍정하는 이유는 이 두 어휘가 갖는 의미대로 '육체노동'을 정신적 해소를 할 수 있는 의미세계로 진입시켜 육체적 고통을 잊은 채 '삶을 긍정'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겠다는 즉, '존재로서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직접적인 감정이 보편화된 감정으로 승화되어 생생한 관념, 생동하는 추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남과 다른 창의적인 궤적을 걷는다고 볼 수 있다. 변화무쌍한 감정이 절제된 추상미로 만개하여 붉은 혈관을 푸르게 변화시키며 천천히 순환하는 순간의 지속을 그의 작품에서 경험하게 한다. 장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붉은 집 녹색 풀 정혜정(정직성/ 95서양)

정직성 동문의 개인전 '붉은 집 녹색 풀 Red Houses Green Pool' 전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옴스큐라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은 정동문이 서울에서 경험한 집에 대한 기억을 종합하는 그림들이었다. 거시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조와 도시 역시 생성과 소멸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연임을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미시적으로는 그가 마음 편히 놓지 못하고 마음 한 켠에 쥐고 있었던 연립주택 연작



에 대한 현재의 마음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다. 정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은 쇠락하여 사라져가는 연립주택이지만 그 안에서 굳건하게 일고 버티며 살아온 젊은, 붉은, 많은 삶의 서사에 대한 작가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007년 신한갤러리 전시 공모, 2008년 신진예술가 성장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연립주택 연작으로 주목받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그림, 만나는 방법 하나 유현경(05서양)

유현경 동문의 개인전 '그림, 만나는 방법 하나'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리아트스페이스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의 유동문의 작품들은 인물화였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성적 교감을 통해 형성된 관계성'에서 출발했지만, 결론에 이를수록 그 관계마저 망각시킨 '실존적 시간대의 새로운 창조방식'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유동문의 인물화는 모델을 만나는 첫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과 그리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러 층위의 긴장감까지 붓질에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얼굴 묘사 역



시 거의 생략되어 추상화처럼 보이는 작품도 많았다. 그렇다고 미완성은 아닌, 한국화의 진경산수화처럼 형상 너머의 내재된 감정선에 충실한 그림이었다. 유동문의 그림은 즉흥적인 감흥과 공간의 리듬감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매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간의 여백이 얼마나 중요한 조형적 완성미를 전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 독일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불타는 사랑의 노래 류성실(13조소)

류성실 동문의 전시 '불타는 사랑의 노래'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강남구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최되었다.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한 설치 작품을 만드는 류동문은 소재부터 진행 형식,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까지 파격, 그 자체이다. 이번 전시는 한 반려견의 죽음과 애도의 예식이라는 스토리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자본가 '이대왕'이 코로나19로 맞이한 수많은 죽음에서 장례사업을 착안하고, 그 대상으로 사람보다 생애 주기가 짧아 높은 회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반려견을 선택했다는 설정이다.



파격적 미디어로 지금 한국의 시대상과 이를 둘러싼 인간 군상을 포착하는 류동문은 에르메스 코리아에서 선정한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로, 역대 수상자 중 최연소이다. 한편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은 2000년부터 에르메스 코리아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11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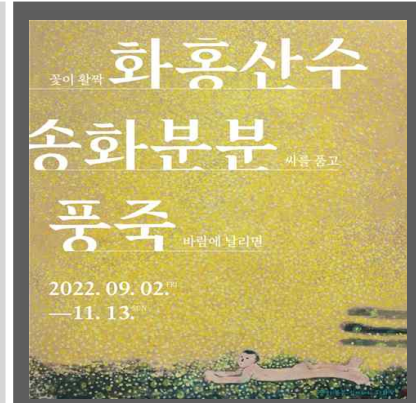
전시 배달부
김덕기(89동양)
8.24 – 23.1.2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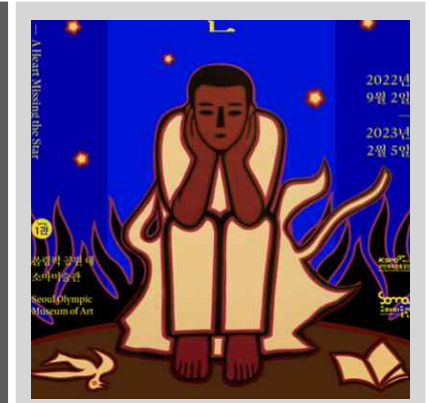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
엄태정(58조소)
8.24 – 23.2.26
아라리오뮤지엄



오늘 본 것
정서영(83조소)
9.1 – 11.13
서울시립미술관



김병중 40년
김병중(74회화)
9.2 – 11.13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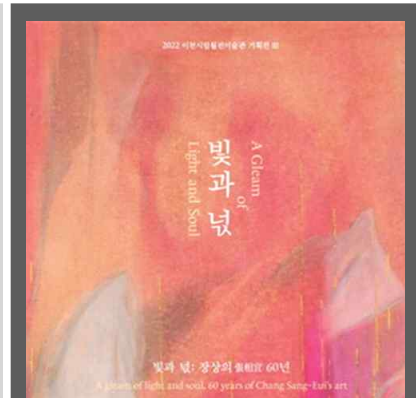
별을 그리는 마음
이만익(57회화/1938-2012)
9.2 – 23.2.5
소마미술관



사유하는 공예가 유리지
유리지(64응미/1945-2013)
9.27 – 11.27
서울공예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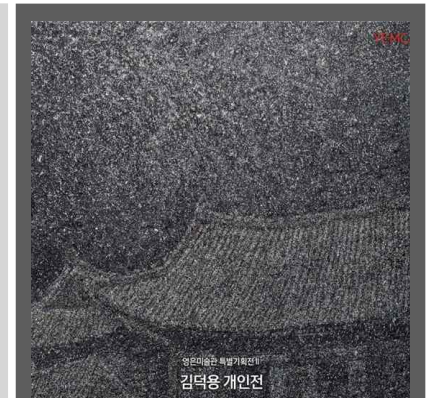
Dreaming
안말환(76회화)
10.5 – 12.6
The Stay Healing Park



빛과 닻 : 장상의 60년
장상의(59회화)
10.6 – 11.27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수화와 우성 70년 만의 재회
김종영 · 김환기
10.7 – 11.13
김종영미술관



스물 네 개의 빛바람
김덕용(81회화)
10.8 – 12.31
영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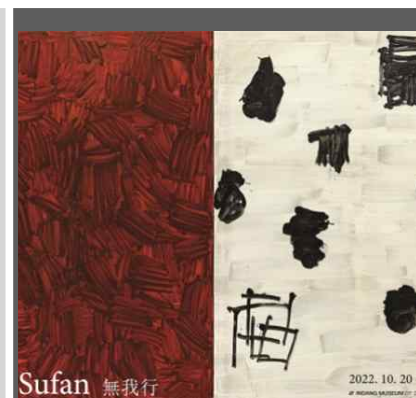
보잘것없는 풍경 다시읽기
정상곤(83서양)
10.19 – 11.9
칼리파갤러리



블루스
장진(92동양)
10.20 – 11.19
오씨아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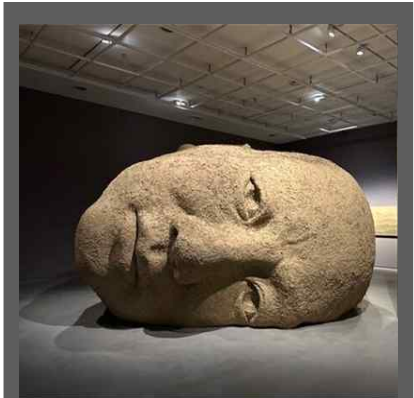
Pairs 쌍 - 땃구
윤동천(81회화)
10.20 – 12.21
갤러리시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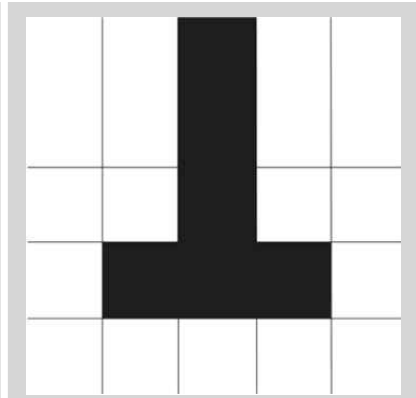
無我行
오수환(65회화)
10.20 – 23.1.10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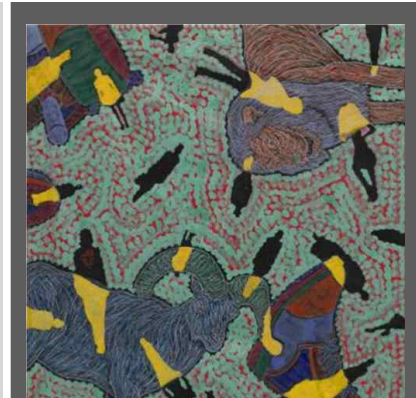
소소하지 않은 일상
서제만(12서양) 외 13인
10.21 – 11.27
서울대학교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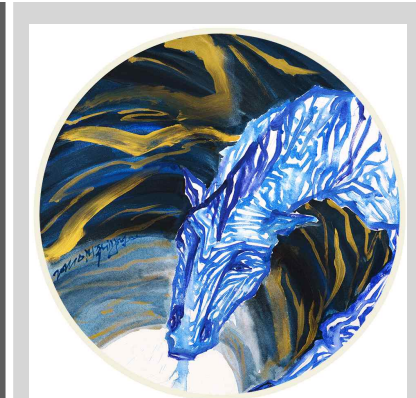
임옥상 : 여기, 일어서는 땅
임옥상(68회화)
10.21 – 23.3.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cul de sac
정승운(82회화)
10.25 – 11.12
SPACE CCAE



모비우스적 노마드
허진(81회화)
10.26 – 11.15
베카 갤러리



영원한 공명
이민주(76회화)
10.26 – 11.18
안상철뮤지엄



동백 그리고 모란
박혜령(74회화)
11.2 – 11.8
갤러리루벤